

■ 제2회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채용박람회 가보니

# “현대·기아가 보증하니 든든” 4000명 성황

노동청·중기청 등 지원  
호남권 협력사 45곳 참가  
특성화고교생 단체 방문  
“타기업들로 확산됐으면”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2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박람회에는 호남권 43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기아차 협력 업체니 믿을 만 하잖아요 내가 일해야 할 직장이어떤 곳인지 알게 된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만난 변민식(24)씨는 “첫 직장을 얻기 위해 박람회를 찾았다”며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구직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선이공대학 자동차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릴 직장을 찾고있었다는 변씨는 “기아자동차 AUTO Q와 현대자동차 BLUEhands 등에 호감이 갔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 열리는 이날 채용박람회는 현대·기아차가 협력사의 인재 채용을 위해 마련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번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62만대 증산체제의 조속한 실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

이다.

지난해와 같이 비용 부담은 물론 행사 기획에서부터 운영, 홍보까지 전 부문을 총괄 지원한 이번 행사에는 호남권 협력사 45개사가 참가했다.

채용 박람회장은 지원자에게 협력사를 소개하고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채용상담관, 협력사의 신기술 부품 전시관, 기업가치를 알리는 홍보관, 취업 컨설팅이나 면접이미지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하는 부대 행사관도 마련돼 구인·구직활동을 도왔다. 또 광주시와 광주노동청, 광주전남중기

청, 광주상와 대학 등이 대거 참가 박람회를 지원했다.

지난해 1만5000여명 채용이라는 높은 실적과 현대·기아차가 ‘보증’을 선다든 프리미엄 때문인지 이날도 4000여명의 청년 인재들이 대거 몰렸다. 조선이공대에서는 자동차 및 기계 관련 학과에서 100여명이 단체로 참여했다. 대학은 물론 각 구청도 인력센터에 도움을 청한 구직자와 함께 행사장을 찾아 면접을 하기도 했다.

취업준비생 김전우(28)씨는 “현대·기아차가 직접 부품협력사들을 위해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해서 왔

다”며 “몰랐던 기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취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순천공고와 여수석유화학고 등도 지도교사와 함께 단체로 박람회장을 찾았다. 북포중앙고 학생은 학기중임에도 자비를 들여 친구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 꿈을 키웠다. 이들은 당장 취업보다는 면접 방법과 이미지 컨설팅 등에 관심이 더 많았다.

협력사들은 현대·기아차 1차 벤더(협력사)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

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였다.

(주)광일기공 권오충 공장장은 “심각한 구인·구직난 속에서 대기업이 나서서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열어주니 구직자들이 더 신뢰하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 같다”며 “지난해 10명을 채용했는데 올해도 3명 정도 뽑은 후 점차 인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력사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 차원에서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다른 대기업들도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전남 기업들 부도 줄었다

어음부도율 0.32%P 하락

광주·전남 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1일 발표한 ‘2013년 2월 중 광주·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에 따르면 전자결제분을 제외한 부도율은 0.23%로 전월 0.55%에 비해 0.3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 발생한 지역 건설업체의 부도영향이 정정되면서 신규 부도업체수와 부도금액이 축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의 경우 1.01%에서 0.37%로, 전남지역 0.18%에서 0.07%로 각각 0.64%P와 0.11%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70.7억원), 제조업(-30.3억원) 및 서비스업(-4억원) 모두 감소했다.

또 신규 부도업체수(당좌거래정지업체수)는 2개로 전월 8개에 비해 6개 줄어들었으며, 신설법인 수는 356개로 전월 432개보다 76개가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공정위, 사조그룹에 면죄부”

경실련 “화인코리아 회생 방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무혐의 및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위가 사조그룹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21일 비판했다.

경실련은 작년 8월 공정위에 사조그룹이 사실상 유령회사인 ‘에드윈플러스’를 통해 채권을 사들여 광주·전남지역의 닭·오리 가공업체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막고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사조그룹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와 인력지원행위, 기타 사업방해활동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심의결찰조류’ 및 ‘무혐의’, ‘경고’, ‘무혐의’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공정위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인 에드윈플러스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페이퍼컴퍼니인 에드윈플러스의 업종을 ‘경비 및 용역업’ 또는 사업업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막고 파산을 독촉하는 에드윈플러스의 방해행위에 대한 조사 요구를 왜곡, 사조그룹이 에드윈플러스 등 계열사를 통해 화인코리아에 권한을 행사한 대위변제공탁 방식의 적법 여부만 따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광주신보, 동구 영세상인에 3억 출연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형진)은 21일 동구와 영세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광주 신용보증재단은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영세소상공인과 협동조합에 3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동구는 재원 2000만원을 재단에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특별보증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으로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의 절반을 위해 보증요율을 1.0%로 정해 약 0.2%를 우대하기로 했다.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동구지역 경제에 활력을 한 영세소상공인과 협동조합에 3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동구는 재원 2000만원을 재단에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국새농민회 광주시회 ‘정기총회’



(사)전국새농민회 광주시회는 21일 농협광주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2012년 사업실적 보고와 2013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승인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제공>

##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환영”

광주상인단체, 광주시에 검토 촉구

광주지역 상인단체가 최근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판매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품목을 발표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고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강운태 광주시장도 서울시와 같은 권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콩나물, 배추 등

38종, 담배, 소주 등 기호식품 4종 등 총 51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수량을 줄이는 등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소상인단체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대형마트의 추가출점과 광주, 인천, 울산 등에서의 SSM 편입 진출로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주목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상인단체는 대형마트들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영업 자유 침해

를 근거로 서울시의 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동네 안구점이 사라져 이제 대형마트나 온라인 거래로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대형마트가 시장을 독과점하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단체는 “신도시, 구도심, 농어촌 등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중소상인들과 대기업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면 훌륭한 상생 모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광주지역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해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skyfh.kr

# 고객을 하늘같이 섬기겠습니다!

사랑·신뢰·봉사를 경영실천이념으로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SKY (주)스카이 장례식장**

400여명 동시 수용 가능한 접객실 2곳 운영  
광주최초 2실의 입관시설 도입으로 고객편의제공  
연건평 6,000㎡의 호남지역 최대시설 최대면적  
1,000여대 동시 주차 및 각종 편의시설 보유

VIP실, 분향소, 귀빈실, 접객실

찾아 오시는 길: 서울-광주고속도로 21번, 호남고속도로 21번, 광주-수원/청담, 수원/청담-신월IC, 신월IC-대구/순천, 광주-시흥/터미널, 시흥/터미널-보전대학교, (주)스카이 장례식장 062-951-1004 (천사), 제2순환로, 수원지구 (인명물대역), 하남공단

문의 전화: 062)951-1004(천사)

사랑·신뢰·봉사를 경영실천이념으로 (주)스카이 장례식장